

# 환경오염의 주범은 누구인가



李性浩

〈(株)·안양공장 환경관리인〉

나도, 이제는 찌들리는 공해속에서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울부짖는 가련한 한 생명체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도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달라”이 소리는 공중에 날아 다니고 있는 수많은 새들과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에 구원을 호소하는 애절한 절규의 소리이다. 내가 어릴적에 하천에서 밤에 햇불을 켜들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고기를 잡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국가적인 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산업화가속으로 경제성장이 급상승 되었고 인구의 팽창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비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보건위생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국제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화되어 정부행정 당국에서도 위생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한 이 지구상에서 공해추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자행해온 행위로 말미암아 강줄기를 따라 휩쓸려 떠내려가는 각종 오염된 폐

수, 공장폐수, 농공업 및 가정하수에서 배출되는 부패성 물질 및 질소와 인, 계면 활성제 성분의 과다 발생에 의거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및 하천수 오염 폐비닐, 농약병 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산업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거리 질주하고 있는 각종 차량 등에서 내뿜는 매연 등 각종 매연으로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지구상에서 생물뿐 아니라 모든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그중 산성비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및 오존층의 파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무분별한 훼손으로 녹지의 황폐, 도처에 태산같이 산재되어 있는 각종쓰레기 더미 등으로 위생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해의 주범은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류전체가 깨끗함을 원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바랄진대 이것은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 우리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매연에 찌들린 공기, 썩어가는 하천에서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나에게도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달라”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한 생명체의 소리를 우리 국민 모두가 냉철하게 가슴깊이 반성 하

면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공해의 현난국에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최우선 개선책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한다.

첫째 : 제반환경 오염방지는 정부의 환경관계 당국과 3만여명의 산업체 환경관리인들만의 책임 있는 국한된 임무가 아니고 전국민이 환경 관리인 동시에 환경 감시원이며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것 만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요 사명 이라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가정에서는 하천 오염에 문제시 되는 부폐성 물질 및 기름 성분의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별도로 담아서 분리 수거 할 수 있도록 하고 계면 활성제 성분을 최대한으로 감소 사용한다면 현재 보다도 하천 오염이 상당히 감소 될 것이다.

둘째 : 각 산업체의 경영자께서는 환경관리 부서는 생산성과 관계 없는 소비부서라는 그릇된 사고 방식을 버리고 우선적으로 공해 방지시설 설치 자금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완벽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정상 가동 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환경 관리인은 환경 오염방지에만 전념 투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 일부 산업 폐기물을 처리 업자께서는 이윤 추구에 눈이 어두워 중금속 및 악성 산업 폐기물을 강과 하천이나 녹지에 마구자비로 투기 또는 매몰 하여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물론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행위적인 작태를 버리고 환경 보전법 규정에 입각해서 정상 산업 폐기물을 처리 하여야 한다.

넷째 : 농공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께서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폐합성 비닐류 및 농약을 사용 후 남은 빈병을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

다섯째 : 문교부 당국에서도 환경 교육제도를 정책적으로 신설하여 유치원부터 환경 보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실질적인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 확립과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전념을 다



“

산성비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및  
오존층의 파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무분별한 훼손으로 녹지의  
황폐, 도처에 태산같이 산재되어 있는  
각종쓰레기 더미 등으로  
위생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해의 주범은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하여야 될 것이다.

여섯째 : 정부의 환경관계 당국과 산업체 환경 관리인들은 환경 오염방지의 최일선에 앞장서는 전초병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만이 사회가 요구하는 자연환경과 위생 환경 보전을 위한 지름길이요, 범국민적으로 정신력을 재무장하여 공해 추방 및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각종 공해로 부터 오염되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자손 대대로 살아갈 유일한 땅인 이강산을 깨끗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물려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의식의 전환이야말로 환경오염 추방의 첨경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